

조선어교육에서 문법적성구를 뉘게 인식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김 정 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선말은 표현이 매우 풍부하여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감정이든지 능히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308페이지)

조선말은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표현수단과 수법들이 있어 그 어떤 복잡한 사상감정도 생동하고 섬세하게 표현할수 있다.

우리 말의 문법적표현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나타내는 문법적수단들가운데는 문법적성구도 있다.

성구는 둘이상의 단어들이 하나의 단어처럼 함께 쓰이면서 하나의 통일적인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공고한 결합체를 말한다.

성구가 나타내는 뜻은 그것을 이루는 단어들의 개별적인 뜻의 산수적인 합으로 설명되지 않는 전일적이고 통일적인것이다.

례를 들어 성구 《수박겉핥기》는 4개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 즉 《수박》, 《겉》, 《핥다》, 《기》로 이루어지는데 성구의 전체 의미는 매개 단어들이 가지고있는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의 새로운 의미 즉 《형식적이다》, 《실속이 없다》는것을 나타내며 그 구조도 마음대로 고칠수 없는 고정격식화된 모양을 가지고있다.

이처럼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공고하게 결합되어 전의된 어휘적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적단위를 성구라고 하는데 상대하여 일련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수단들과 보조적단어들의 결합형태들을 문법적성구라고 부른다.

문법적성구란 단어나 단어결합이 제한된 문법적형태들과 함께 어울려 하나의 통일적이고 전의적인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공고한 표현단위를 말한다.

현시기 조선어교육에서 문법적수단의 하나인 문법적성구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것은 조선어에서 문법적성구들이 수행하는 문법적기능과 관련되기때문이다.

문법적성구라는 개념자체가 문법적수단들의 굳어진 형식인것으로 하여 조선어교육에서 이러한 언어적단위에 대하여 기계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만으로는 정확한 인식을 줄수 없다.

지금까지 조선어교육에서는 이러한 문법적수단들에 대하여 문장안에서 수행하는 문법적기능의 측면에서 전일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주로 개별적수단들을 분석해주는 방법으로 교육하는것이 일반적이였다.

례: 나는 전화종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는바람에 잠에서 깨여났다.

이 문장에서 《는바람에》에 대하여 설명할 때 지금까지는 《는》은 규정토이며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낸다》는 사전풀이를 해설해주는것으로만 그치였다.

레: 미래를 위하여 투쟁한다.

이것도 역시 《위하여》에 대하여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사로서 반드시 앞에 《을/를》의 형태를 요구하며 문장성분으로는 앞의 요소와 결합하여 상황어로 쓰인다는 정도로 교육해왔다.

우리 말에서 문법적성구는 문법적형태와의 공고한 결합밑에 전의된 문법적의미를 전일적으로 나타내는 문법적수단이다.

레: ○ 영수는 오늘 신문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았다.

○ 철수가 내 소설책을 보는바람에 마저 읽지 못했다.

레문들에서 《보다》와 《바람에》는 보조적으로 쓰인 단어로서 앞단어의 《-어》, 《-는》형태와 결합되어 《체험, 시도》, 《원인》의 문법적뜻을 나타낸다.

단어결합 《읽어보다》에서 앞단어 《읽다》를 《입다》나 《쓰다》로 바꾸어 《입어보다》, 《써보다》로 하여도 보조적단어 《보다》의 문법적뜻은 달라지지 않으나 앞단어의 문법적형태를 《어서》로 바꾸어 《읽어서》로 하면 《보다》는 더이상 《체험, 시도》의 문법적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문법적성구는 대체로 보조적단어에 의하여 만들어지는데 어휘적성구에서처럼 한 단어에 해당하는 성구들이 여러개 있는것처럼 문법적성구들도 여러개 있을수 있다.

여기서 보조적단어들은 어휘적성구에서와 달리 앞단위가 아니라 그것의 문법적형태와 굳어진 결합적관계를 맺으면서 그 전체로서 의미적전일성을 가지며 그렇게 됨으로써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사이의 관계나 문법적뜻을 보충해주는 문법적수단으로 되고있다.

문법적수단들인 토와 보조적단어들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문법적성구들은 그 전체가 하나의 문법적형태부에 맞먹는 성구적단위로 리용된다.

그러므로 조선어에서 문법적성구들을 개별적인 뜻의 산수적인 합으로가 아니라 그 전체로서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수단으로 처리하고 그 기능을 밝혀주는것이 의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문법적성구에 대한 교육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문법적성구의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시키는것이다.

조선어에서 문법적성구는 일련의 문법적형태들과 단어들의 결합형태로 표현된다. 조선어에서 모든 단어결합은 앞단어가 가지는 문법적형태 즉 내적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문법적성구는 구조상에서 크게 앞부분에 해당하는 요소와 그 뒤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로 갈라볼수 있다.

앞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는 언제나 앞의 단어가 가져야 할 문법적형태를 표시하는 토로 제시된다. 레를 들어 《만들어보다》나 《가는바람에》에서 앞요소는 접속토 《-어》, 규정토 《는》으로 제시되고있다.

뒤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는 보조적단어 또는 보조적단어가 포함된 형태로서 문법적성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문법적성구의 형태론적자격은 뒤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로 되는 보조적단어의 품사적성질에 관계된다.

레를 들어 《-어보다》의 의미는 뒤부분에 해당하는 요소인 단어 《보다》의 본래의 어휘적 의미로부터 전의된 《체험, 시도》의 성구적의미이며 그 형태론적자격은 보조적동사에 의하

여 결정되어 문장에서 용언으로서의 문법적형태들을 자유롭게 가질수 있다.

다른 실례로 《나는 조선어로 말할수 있다.》의 《-ㄴ수 있다》에서 뒤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는 불완전명사 《수》와 동사 《있다》가 결합한 단어결합으로서 이 결합전체가 《가능성》이라는 성구적의미로 전의되고있으며 문법적성구전체가 용언으로서의 자유로운 형태구성을 할수 있게 만든다.

이처럼 문법적성구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는 앞에 놓이게 될 단어의 문법적형태를 제한하며 뒤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는 문법적성구의 의미적내용과 형태론적자격을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문법적성구의 구조형식에 대한 교육을 원리적으로 진행하는것은 문법적성구의 기능과 함께 그 의미에 대한 전일적인 인식을 가지는데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언어의 어휘구성속에 성구들이 미리 준비되어있듯이 문법적성구들도 해당 언어의 문법적수단의 계열에 갖추어져있다.

문법적성구는 기본적으로 보조적단어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한 단어에 관련되는 어휘적성구들이 여러개 있을수 있듯이(례를 들면 《눈이 멀다》, 《눈을 팔다》, 《눈이 높다》,...) 한 보조적단어와 관련되는 문법적성구들도 여러개 있다.(례를 들면 《-어보다》, 《-는가보다》, 《-고보니》, 《-다보니》,...)

한편 우리 말 단어의 문법적형태는 토의 교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단어의 형태음운론적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변종의 토들이 들어붙을수 있다.

문법적성구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은 그에 대한 교육에서 구조형식을 정확히 구분해두는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례: ㄱ: 그는 길가에 휴지를 버리었다.

ㄴ: 숙소에 돌아오니 이미 그는 가버렸다.

례문 ㄱ에서 동사 《버리다》는 동작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 《휴지》와 맞물림관계를 맺고있으며 이것은 격토 《를》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러나 례문 ㄴ에서는 이음토 《아》의 도움으로 동사 《가(다)》와 결합하여 보조동사로 되면서 문법적성구로 쓰이였다.

그러므로 례문 ㄱ에서는 《버리다》가 《가지고있던것을 던지다.》는 자립적인 뜻을, 례문 ㄴ에서는 행동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문법적의미를 나타내였다.

조선어의 문법적성구에 대한 교육에서 나서는 문제는 둘째로, 문법적성구가 문장안에서 나타내는 문법적의미를 정확히 인식시키도록 하는것이다.

문법적성구는 문장안에서 단어들사이의 관계나 그것들이 현실과 맺는 관계 등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낸다.

문법적성구가 일반적으로 보조적단어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보조적단어의 모든 형태가 다 문법적성구로 쓰이는것은 아니다. 한정된 문법적형태와 결합된 조건에서 추상화된 문법적의미를 나타낼 때에만 보조적단어가 문법적성구로 쓰이게 된다.

례: 이 신발은 아버지가 새로 사온것이다.

실례문은 규정토 《-ㄴ》과 불완전명사 《것》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일반적으로 불완전명사 《것》은 임의의 규정형태뒤에서 《대상화된 물건이나 상태, 행동, ...》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다. (례를 들면 《낡은것》, 《읽은것》, 《가는것》,...)

그러나 이러한 의미로 쓰인 불완전명사의 실현형태는 문법적성구로 보기 곤란하다. 왜

냐하면 이러한 단어결합에서 전체의 의미가 개개의 구성요소들의 뜻의 단순한 합으로 얻어지며(아버지가 새로 사왔다는 과거의 시간적의미) 또 여기서 《것》의 의미(물건의 의미)가 그대로 실현되기때문이다.

례: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

앞의 예문과 달리 이 예문은 규정토 《-ㄱ》뒤에서 《것》이 서술형태로 쓰여있다.

이 문장에서 불완전명사 《것》에는 앞에서와 같은 《대상화된 물건이나 상태, 행동》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 즉 규정토 《-ㄱ》과 결합되어 그 전체가 《추측, 의지, 확신》이라는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고있다. 즉 이 문장에서 《-ㄱ것》은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라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의 의미를 보태주는것으로 하여 문법적성구로 되는 것이다.

문법적성구는 제한된 문법적형태들과 보조적단어들이 공고하게 결합하여 그 전체로서 전의된 문법적의미를 나타낸다는데 고유한 언어적표식이 있다.

례: ㄱ: 하루빨리 조국에 돌아가고싶다.

ㄴ: 오후쯤엔 비가 올듯싶다.

ㄷ: 여러분이 다 알다싶이 오늘 우리 인민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번영의 시대에 살고있다.

예문 ㄱ에서는 《~고싶다》형으로 《희망이나 욕망》을 나타내는 문법적성구로 쓰여있다면 ㄴ에서는 《~듯싶다》형으로 쓰여 《그와 같이 생각된다.》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그런가하면 예문 ㄷ에서는 《다싶이》형으로 쓰여 《같이,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성구로 쓰여있다.

이처럼 같은 단어에 의해 이루어진 문법적성구도 결합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문장안에서 문법적형태에 따라 문법적성구가 나타내는 문법적의미를 바로 인식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조선어의 문법적성구에 대한 교육에서 나서는 문제는 셋째로, 문법적성구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교육하는것이다.

문법적성구들은 그 전체가 하나의 문법적형태부에 맞먹는 성구적단위로 리용되는것만큼 그 류형도 그것이 문장안에서 어떤 형태-문장론적기능을 노는가를 기본으로 하여 갈라보는것이 타당하다.

형태-문장론적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문법적성구들은 단어와 단어사이에 문법적관계를 맺어주거나 어떤 단어가 나타내는 내용에 문법적의미를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부터 문법적성구에 대한 교육도 단어들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기능을 노는 부류와 다른 서술적단위에 문법적의미를 보태주는 기능을 노는 부류로 나누어 진행할수 있다.

우선 단어들사이의 관계적의미를 실현해주는 문법적성구들에 대하여서는 어떤 부류의 단어들과 관계를 맺어주는가에 따라 네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례: ○ 조국에 대한 사랑, 미래를 위한 사랑(《체언-체언》부류)

○ 론문에 대하여 해설한다.(《체언-용언》부류)

○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 한번 해본다는 식의 태도(《용언-체언》부류)

○ 소리를 치는바람에 깨어났다. 공을 놓아둔채로 가다.((용언-용언)부류)

이 부류의 문법적성구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뒤부분에 해당하는 요소가 한정된 문법적 형태를 취한다는것을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즉 뒤부분에 해당하는 요소가 형태단어로 제시된다는데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앞부분에 해당하는 요소와 뒤부분에 해당하는 요소와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공고하여 어떤 다른 토들이 삽입되는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도 바로 인식시켜야 한다.

례를 들어 《-에 대한》은 《-에서 대한》이나 《-에게 대한》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다는것이다.

문법적성구에는 또한 서술적단위에 붙어 문법적의미를 보태주는 부류가 있다.

이 부류에서 기본은 용언적단어와 보조용언이 어울려 이루어진것들이다.

례: 밥을 다 먹어버렸다. 책을 읽고싶다.

우의 례에서 자립동사들인 《먹다》, 《읽다》와 《버리다》, 《싶다》와 같은 보조적동사들이 결합하여 행동의 상태나 희망과 같은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성구로 쓰이었다.

일부 보조용언들인 경우에는 문법적형태구성에서 제약을 받는것들도 있다.

례: ○ 창밖을 내다보지 마시오.

○ 어머니가 막 보고싶어 죽겠다.

례문들에서 《~지 마시오.》는 《요구》의 뜻을 나타내는 문법적수단인 《시오》와 함께 쓰여 《금지》라는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문법적성구로 쓰이었다. 그런가 하면 《~어 죽다.》는 《겠》과 어울려 앞말이 나타내는 상태나 정도를 강조하는 문법적의미를 나타내었다.

용언적단어에 붙는 문법적성구들에는 뒤부분에 해당하는 요소가 불완전명사와 동사, 불완전명사와 형용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것들도 있다.

례: ○ 그가 떠나갔다는것을 도저히 믿을수 없다.

○ 학교가 옮겨간 사실을 모르는척 하였다.

례문들에서 불완전명사들인 《수》나 《척》은 《없다》, 《하다》와 결합하여 각각 《가능성》, 《거짓태도나 어떠한 모양》이라는 문법적의미를 나타내었다.

용언적단어에 붙는 문법적성구에는 이밖에도 용언적단어와 불완전명사의 서술형으로 이루어진것들도 있다.

례: 우리는 승리할것이다. 반드시 승리자가 될터이다.

이처럼 조선어교육에서 문법적성구의 구조와 문장안에서 나타내는 문법적의미 그리고 그 류형별에 대하여 교육하는것은 문법적성구의 전모를 파악하는 측면에서뿐만아니라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주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앞으로 문법적성구를 비롯한 문법적수단들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조선어교육을 더욱 실속있게 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문법적성구, 는바람에, 단어결합